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체육의 역할

김 정 명*

- I. 머 리 말
- II. 청소년과 체육의 관계에 대한 편견
- III. 새 시대의 체육문화와 청소년
- IV. 청소년 기본계획과 체육의 역할
- V. 결 어

I. 머 리 말

한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은 여러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체육문화 수준이야말로 생생한 선진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체육은 개인적으로 튼튼한 체력을 육성, 유지시키는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산업화 문명 속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간소외의 문제와 증대된 여가의 적절한 사용방법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는 훌륭한 수단으로서 인간성 회복과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여가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각종 운동경기를 통하여 국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국민의 단결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같은 관계로 세계 여러나라는 저마다 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체육을 진흥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참다운 선진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체육문화의 진흥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86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 국제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세계 만방에 펼쳐왔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뛰어난 선수들의 기록향상에 치우쳐 왔던 소위 엘리트 스포츠의 편향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민 대다수를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체육운동을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정책당국에서도 이러한 체육문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육문화의 저변확대를 통한 국민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적 체육문

*한국청소년연구원 책임연구원

화의 수준향상과 더불어 또하나의 국민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우리의 청소년을 올바른 체육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시키는 일이다.

신체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데도 과다한 학업경쟁, 시설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자의반, 타의반 상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년의 실정이다. 더구나 학교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체육활동마저 몸과 마음을 즐겁게 탐구하고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야하는 시간이 되지 못한 채, 체력장 준비를 위한 단순 기능 학습 시간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있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추구의 수단이 되는 소중한 체육활동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들에게서 지·덕·체를 고루 겸비한 전인적 인간상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은 체육의 진흥과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오히려 체육이 쫓겨야 할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나라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체육과 깊이 연관시켜 청소년 관련 정책결정을 청소년·체육부 혹은 청소년·체육·문화성이라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최근에 와서야 체육청소년부를 구성, 아직까지 체육진흥과 청소년육성이라는 두 국민적 과제의 밀접한 상관성 및 상호보완적 역할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그동안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할 때, 그들의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복지 차원에서 총체적·조장적 노력 보다는 일부 문제청소년 위주의 산발적·규제적 처방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청소년이 체육을 통하여서만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이 청소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체육문화에서 청소년들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고려할 때 체육의 중심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체육의 역할이 어찌서 우리주변에서는 중심적으로 보다는 지엽적으로 비쳐져 왔는지 먼저 생각하고, 새시대의 체육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는 체육의 중심적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청소년과 체육의 관계에 대한 편견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체육의 역할을 지엽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교육현장에 존재하는 지식편중 교육풍토에서 비롯된다. 예로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금언이 말해주듯이 체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청소년 육성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더욱이 오늘날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과학이 만들어 내는 지식의 홍수로 인한 지식 의존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 되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하면 지식교육만을 연상할 만큼 청소년들의 교육에 지식습득 편중 풍토가 확고히 자리를 굳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로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만큼 많은 지식습득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다. 그중에 상당부분은 상급학교에서 전문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고 보면, 그만큼 우리의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덕육이나 체육보다는 지식교육에 쏟고 있고 자유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그러한 지식인력 덕분에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일부 교육학자들의 주장 또한 명분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자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보면 과중한 지식교육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시간마저 좁혀져서 얻기 어려운 우리의 청소년의 형편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소년 육성에서 체육의 역할이 주변적으로 보이는 두번째 이유는 체육이 덕육과는 무관한 것 같다고 느끼는 선입견에서 출발한다. 갖가지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은 익히 감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체육의 주내용이 되는 스포츠가 청소년들의 덕성함양에 지름길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순한 오락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스포츠는 즐거운 신체활동임과 동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합리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을 연습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우월성을 가려내는 진지한 활동으로 페어플레이 정신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맨쉽이 행위규범을 준수하는 정신으로 곧바

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스포츠활동의 윤리적 측면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건전한 경쟁심과 사회성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주시민의 자질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체육이 덕성함양과 무관하다 느끼는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그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경기장 폭력과 같은 비윤리적 현상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며 지나친 승부욕 보다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체육문화에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의 역할을 지엽적으로 만드는 세번째 이유는 체육의 기능화현상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가지 원인이 체육 외적 배경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체육 내에서 자생된 문제로 체육계의 특별한 관심이 요청된다.

「체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대답은 주로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것 혹은 그에 상응하는 체력을 보강하는 것」등으로 집약된다. 이는 모두 경기력 향상이라는 신체기능의 발달에 바탕을 둔 체육에 대한 인식으로 보여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체육 수업에서나 체육과외 지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특정 스포츠의 경기력이나 기능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상을 볼 때, 체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기능위주 체육의 바탕에서 볼 때 체육활동이란 청소년의 건전성장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기껏해야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을 돕는 것이 체육의 주목적이며 그 외에 체육의 역할은 좁게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기능위주 체육의 굴레에서 체육지도자들이 운동의 수행능력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획일성과 타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체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경험과 느낌, 자율성등이 무시되어 체육에서 다루는 흥미있는 활동을 지겨운 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체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학교체육 수업이나 군사훈련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던 신체활동의 반강제성이 체육에 대한 흥미를 빼앗아 갔다고 고백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능위주 체육이 엘리트스포츠의 육성에 밑거름이 되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을 올림픽 선수로 키울 것이 아니라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체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접근하여 체육의 목적, 내용, 방법들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곧 체육활동을 기능적 차원에서 고려함과 동시에 복지적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체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활동은 노동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과 그 질에서 차이가 있는데, 기능위주 체육은 그 차이를 무시하기 쉽다. 노동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은 활동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체를 유지한다는 외재적 목적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체육에서의 신체활동은 활동자체에 내재해 있는 목적, 즉 건강이나 카타르시스, 심리적 성취감 등의 요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움을 수반할 수 있고, 생활에너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백미터 달리기를 영점 몇초 앞당기는 것만이

체육의 목적이 되는 상황에서는 체육이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타자를 치는 기능훈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체육이 청소년 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 습득 위주의 체육이라는 편협한 체육관(體育觀)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들이 체육의 참 의미를 깨닫고 건전한 신체활동의 장으로 스스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III. 새시대의 체육문화와 청소년

청소년 건전육성의 과제에서 체육의 중심적 역할을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여 체육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새시대의 체육문화 속에서는 체육이 단지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에만 관여하는 분야로 간주되는 편협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총체적 발달 즉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폭넓게 관여하는 분야로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가올 우리 사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체육이 담당하게 될 구체적 내용들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를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에 의하면, 우리 국가사회는 민주·복지사회, 개방·국제화 사회, 고도산업·정보화 사회의 세가지로 특징지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로, 민주·복지사회란 국민 개개인의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기회의 균등과 배분의 공평을 통하여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지역적 발전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복지 수준이 향상된 사회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복

지사회상과 체육문화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체육의 주 내용이 되는 각종 스포츠 활동만 보더라도 이것이 즐기기 위한 단순한 오락 이전에 기회 균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져 우월성을 공정하게 겨루는 민주·복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규칙은 참여자들 간의 약속으로 이것이 위반되었을 때 적당한 벌칙이 가해지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운동 경기는 덕육의 연습장이 된다. 이러한 경기에 참여를 통하여 승자는 승자로서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지만 패자는 패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함께 상대의 우월성을 존중하면서 다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스포츠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함양할 수 있는 4가지 가치, 즉 규칙 준수, 팀워크, 상대의 존중, 최선의 노력 경주는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들인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이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우호를 증진시켜 국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역간 스포츠 경험의 기회가 일부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에게만 치중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물론 엘리트 스포츠의 육성 차원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선수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앞으로는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스포츠 경험의 기회가 골고루 제공되어, 기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각종 스포츠 활동을 매개로 지역 간의 활발한 청소년 교류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육문화 속에서만이 참다운 민주·복지사회가 마련되며 민족 대화합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둘째로, 다가올 미래의 국가 사회상은 개방·국제화 사회로, 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가 부상하고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선진 각국과 대등한 경쟁관계가 형성될 뿐아니라 국제 간의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는 사회를 말한다. 국제 간의 우호 증진에 대한 체육 교류의 기능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여기서는 특히 개방·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체육문화의 위상이 정립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국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은 대개 올림픽 공식 종목들로, 이를 위한 국민적 노력에 힘입어 지난 서울 올림픽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민족의 신체적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기 종목이 서양 체육문화에 기반을 두고 발달한 것들 이어서 우리 고유의 체육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태권도만은 국제화에 성공하여 세계 각국에서 각광을 받는 스포츠로 성장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가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태권도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스포츠로 발전시킨 체육인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씨름은 아직 국제화 단계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지만 사라져가는 민족체육의 상태로부터 부활되어 우리 주변의 친숙한 스포츠로 남게 된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8월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우리의 민속놀이들을 프로그램화하여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여기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썩 해 하는 외국의 청소년들을 도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흐뭇한 광경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첼린지 벨리」라는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모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활동에 임하는 우리 청소년의 태도가 외국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음을 그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였을 것이다. 그 활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소하기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전통체육에는 그 보다 더 모험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들이 계승·발전되지 못한 채 풍물거리로나 남아있는 형편이다. 또한 과도한 학업경쟁 속에서 그러한 활동을 즐길 틈도 없이 모험을 피하여 사는 나약한 생활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가올, 아니 도래하고 있는 개방화·국제화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는 두말할 여지 없이 빈번해 진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류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체육활동일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스포츠 종목의 기량향상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민족적 긍지를 심어줄 수 있고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힘을 기울여 우리 체육 문화의 국제화에 터전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상은 고도산업·정보화 사회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이 확대되고 정보제어 기능이 신장됨으로써 선진국형 고도산업 사회가 실현되는 단계를 말한다.

고도산업·정보화 사회가 체육 문화와 청소년

년의 성장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지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한 사회에 도래해 있는 선진 각국의 경우를 보면 자명해진다. 고도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세가지 사회적 현상은 노동시간의 감소, 여가문화의 발달, 인간소외의 문제로 집약되는데 이 세가지 현상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고도산업화로 갈수록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됨에 따라 노동시간이 감소되고 여가시간은 증대되는데, 인간의 일이 기계로 대체됨에 따라 소위 인간소외 혹은 비인간화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선진 각국의 경우, 고도 산업사회로 갈수록 체육 문화가 국민의 생활속에 자리잡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활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체육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곳에 불건전한 위락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여가시간의 증대로 체육활동을 원하는 인구가 1981년 전국민의 10%에 지나지 않던 것이 올해에는 60%에까지 육박하고 있지만 체육시설과 공간이 협소, 그 수용능력은 이미 한계가 달해 있는데, 일부 퇴폐적인 위락시설은 급증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침범하고 있다.

더구나 1990년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과외활동은 스포츠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T. V. 시청이나 오락게임 등 비창조적이고 피동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짧은 여가를

낭비하고 있고, 성인들의 위락시설의 영향으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놀이풍토에 쉽게 동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염원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독, 일본,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도산업사회가 갖게 될 이같은 증후군을 예측하고 이미 오래전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차원에서 청소년·체육시설에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여가 복지문화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고도산업·정보화 사회를 대비해 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6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대의 미래 국가 사회상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IV. 청소년기본계획과 체육의 역할

청소년기본계획이란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교육 계획이며, 지식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초월한 전인 교육계획으로 심신단련, 자질계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 계획의 핵심이 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은 바로 체육계에서 관심을 갖고 전력으로 지원해야 할 세시대 체육문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기본계획의 중심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본계획에서 수련이라 함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덕·체를 총체적으로 함양하는 전인교육적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체육을

단순히 체력을 기르고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는 편협한 체육론에서 벗어나 체육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총체적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이라는 확대된 개념에서 볼 때, 체육은 수련과 그 기본적인 철학에서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 기본계획이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수립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에는 체육은 있으되 참다운 덕육과 체육이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각급학교 교과 과정에 덕육의 교과인 도덕이나 국민윤리가 있고 체육 또한 교과목으로 들어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도덕이나 국민윤리는 도덕적 판단에 관한 이론 교육이며 지식 교육일 뿐, 체험을 통한 산교육이 되지 못한 관계로 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면 안되는지 몰라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육하는 마음'에서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어느 검사의 최근 조사보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 '육하는 마음'이 대개의 경우 욕구불만에서 비롯되며, 욕구불만은 그것을 풀 기회가 억제 당했을 때 비행화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해마다 50여명의 청소년이 입시중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한다. 이들이 과연 도덕점수가 나빠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

신체활동의 욕구가 가장 왕성한 청소년기에 각종 체육활동은 그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

기에 적합하다는 점은 제론의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 과정 속에 들어 있는 체육시간만으로는 청소년의 왕성한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근래에 와서는 각급학교의 정규 체육 시간이 줄어들었고 부족한 체육시간에까지 입시부담을 안고 체력장 연습에 열중해야 하는 형편이고 보면, 현행 학교 체육만으로 청소년의 전인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특별활동이라 하여 전인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취미와 자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교육 시간이 교육과정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과도한 입시경쟁, 시설부족, 적당한 활동지도자의 부족 등의 이유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수 청소년의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거의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이렇게 자발적 활동이 자의반 타의반 억제당하여 참다운 덕육과 체육의 부재상황에 있는 우리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가치를 심어주고, 그들 스스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계발할 수 있는 수련거리와 터전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전담지도자와 함께 수련활동을 통해서 지·덕·체를 함양하여 이를 생활화·내면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수련거리의 개발, 수련터전의 확보,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 활동 동기부여를 5대 과제로 선정하여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련거리란 수련에 필요한 활동프로그램

및 수련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보급되어야 하나, 현재 체육활동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학교체육에서부터 일부 특정 스포츠종목의 기능수준 향상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의 다양한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새시대의 체육문화 속에서는 체육이 보통 다수의 청소년들의 여가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운동경기 분야에서 보통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쉽고 재미있는 간이 경기를 개발하여 활동공간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기술 수준이 낮은 청소년도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수련터전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활동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청소년기부터 체육의 생활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둘째, 수련 터전은 생활권과 자연권으로 나누어져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는 10년 동안 상당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터전의 확보는 체육계에서 항상 염원해 오던 문제로, 생활권의 경우 학교와 지역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확충될 것이다. 학교에는 적어도 학생들이 체육수업은 물론 특별활동과 과외자율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터전을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부와의 협의하에 강구할 것이며, 지역사회에는 근로청소년과 무직청소년들이 생활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 터전이 확보될 것이다.

자연권의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608개의 청소년 수련장이 마련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자연권 수련활동의 경우 강도 높은 신체활동을 수반하게 되어 체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특별히 요청된다. 그것은 운동경기 이외에도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체육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우리의 청소년이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나가는 것 또한 새시대의 체육문화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 지도자는 계획기간동안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지도교육을 거쳐서 13,000여명이 배출되어 수련터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수련은 그 본질에서 체험중심, 활동중심 교육이니 만큼 그 지도 목표나 방법, 내용등에 있어서 체육인들이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수련은 활동기능을 익히는 것만이 그 목적이 아니라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기능훈련 위주의 획일적이고 타율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의 지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그 수는 청소년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31개 단체와 비가입단체 50여개 단체를 합하여 총 81개를 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중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입시과열, 단체의 재정취약 등 여러가지 활동 장애요인에 의해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청소년단체를 지원하여 단체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게 하는 한편, 수련활동 전문단체의 설립을 지원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련활동 전문단체란 수련거리 별로 전문적 지도능력을 갖춘 단체를 말하는데, 이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들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부응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는 것이다. 가령, 현재의 각종 운동경기 협회에서 그 기능을 확대하여 보통다수의 청소년에게 활동을 보급시키고자 청소년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각종 수련터전에서 스포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수련 전문단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각 스포츠 종목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국민생활체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청소년 기본계획은 그 계획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활동 동기부여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앞에는 건전활동의 갖가지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입시 위주 교육풍토를 비롯하여, 퇴폐적으로 형성된 성인용 위락문화, 테크놀로지 오락 풍토 등이 그것이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에 의해 청소년들 스스로 수련활동을 외면해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마련한 기본계획도 그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다.

시험이라는 사술에 묶인 청소년들에게 수험 공부 못지 않게 수련활동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한들 그들의 안타까움만 더 할 뿐이고, 아무리 좋은 활동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위락시설에 더 관심이 많거나 비디오나 전자오락기 앞에서 지내는 것을 더워 원할 때 청소년 활동사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형성된 것들이어서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 정책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소나마 줄여보려고 입시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성인들의 위락지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중적 조치로서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청소년 활동 동기부여 방안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활동의 진흥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 활동기록부 제도로서, 과열입시의 원인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위주의 인력선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지금까지 입학이나 입사시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주로 학력이었다. 그러나 학력이나 시험은 주지적 능력만이 고려될 뿐 적성이나 인성의 파악이 어려워 부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해 왔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학력보다는 인성을 중시하여 필기시험 제도를 없애고 면접만으로 사원을 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렇지만 면접만으로도 정확한 적성이나 인성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활동기록부제는 이러한 인력선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인성과 적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파악되는 청소년기의 자발적 체험활동 상황에 관한 기록을 공인자료화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입학이나 취업시 자신이 체험한 다양한 활동을 타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인성과 적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가지 체험활동에 보다 자발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지식교육 편중의 우리사회 교육문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이 제도는 관계당국과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이 요구되며 청소년활동이 보편화되는 2000년 대에 이르러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현행 입시제도나 인력선발제도에 익숙해 있는 각급학교나 기관, 사업체 등에 그 중요한 타당성이 충분히 홍보되어야 하고, 전체 청소년에게 수련활동 참여의 기회가 공평히 제공될 시기에 도달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작시키는 활동 기록 제도가 이 땅의 청소년 체육, 나아가 국민체육 진흥에 끼칠 영향은 참으로 지대한 것이다. 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체험교육의 숭고한 목적을 이해하는 체육인들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활동 자체에 강한 흥미와 매력을 갖게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이다. 수련이 종래의 정신교육 방식과 같이 지식습득 위주의 주입식 훈련이 아니고, 즐거운 스포츠 활동과 같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유익한 체험활동이라는 점을 청소년 다수가 먼저 이해하고 경험케함으로써, 수련에 대한 기존의 일부 배타적인 시각과 선입견을 없애주어야 한다. 청소년 활동기록의 제도화와 공정한 관리·유지는 정책 당국의 일이지만,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유도는 체육문화 자체의 발전과 청소년 육성을 위해 각종 수

련거리를 담당하게 될 체육인의 막중한 과제인 것이다.

V. 결 어

지금까지, 청소년 육성의 과제에서 체육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몇가지 그릇된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선진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체육이 담당해야 할 중추적이고 폭넓은 역할에 대해, 한국청소년 기본 10개년 계획의 중심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다는 말이 회자하는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 전체의 복지, 특히 그 나라의 청소년 복지가 실현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문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건전한 복지 문화를 소유한 나라만이 그들을 전인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그 나라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왕성한 신체활동의

요구를 가진 청소년에게 있어서 건전한 복지문화란 그들의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주도하고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체육문화로 대표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칫하면 순간적인 쾌락과 찬다운 행복을 혼동할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절제없는 쾌락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세계각국에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이 약물남용이나 섹스, 사행성 오락 등 청소년기의 여러가지 불 건전한 쾌락 추구 행태를 예방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청소년 건전 육성에 있어서 체육의 중요한 역할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청소년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비롯한 갖가지 심신수련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부담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질 때 우리 청소년들도 그들 본연의 밝은 표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지원, 「육」하는 성질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제1회 보호 관찰 세미나 자료, 법무부(보호관찰소), 1991.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II), '86주요 업

무 보고 자료, 1986.

김정경 외, 청소년 전용 놀이마당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1990.

체육부,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 1991